

현대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글_ 양용희_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계는 이제 정보혁명에 이어 지식혁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기술에 지식이 접목되면서 기업은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생산과 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 지식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산업혁명의 경험과 같이 인간의 생활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식기반경제 연구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들도 지식경제시대의 비교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1996년 발표된 OECD의 지식경제에 관한 보고서는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지식 창출과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과 사회의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단일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영역과 목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변화가 아닌 변화의 속도가 문제

기업과 비영리조직 차원에서도 지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의 도입과 비영리조직들의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사회의 지식은 데이터와 정보의 상위개념으로 '살아있는 지식'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변화 곧,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 지식사회의 출현, 세계화의 물결 등은 사회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국가, 비영리조직 등 모든 조직은 물론 사람들도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사이에 사회복지 욕구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급속한 고령화의 도래로 사회전체의 생산력이 약화되고 노인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7%에 해당하는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14%인 고령화사회(aged society)로 이행하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이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영국은 45년, 일본은 25년이 소요될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그만큼 시급함을 말해준다. 가족구조 역

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핵가족화는 1970년 71.5%에서 1995년 79.8%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1985년 41.6%에서 1999년 47.4% 증가되고 있다. 이혼율 증가도 급속히 가속화되어 1980년 5.8%에서 2000년 35.9%으로 증가하여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의 부양능력이 약화됨으로써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은 사회복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세 타래, 정부·시장·시민단체

우리나라 정부는 IMF 위기 이후 발생된 대량 실업의 문제와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빈곤상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확충, 국민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원화 사회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과 사회의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단일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사회복지단체)가 자신들의 영역과 목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